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대학

정 증 욱 | (주)디유넷 대표이사

사이버 대학(Cyber University)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y)이나 온라인 대학(Online University)이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인가된 원격대학의 명칭에 기존 Off-Line 대학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원격'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포함하도록 규제하였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사이버'라는 명칭을, 소수 대학은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현재 Off-Line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 과정에 온라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독립적인 사이버 대학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교육 자체에 정보통신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 여길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대학이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Off-Line 대학과의 차별을 위해 위와 같이 명칭 상의 구분을 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인가된 사이버 대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필수

적인 Off-Line 대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식 및 체제의 차이를 이름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과정이 고등교육의 주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Off-Line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머물 것인가 하는 인식 차이와 그 의미를 같이한다.

따라서 우선 사이버 대학의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의 진행 과정,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대학의 현황, 사이버 대학 교육의 질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 사이버 대학의 세계적 추세

사이버 대학은 그 명칭을 달리 하더라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세계에 많이 있다. 사이버 대학은 그 특성에 따라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설립 형태에 따른 구분, 둘째는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 셋째는 교육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첫째, 설립 형태에 따른 사이버 대학의 구분은 기존의 Off-Line 대학들이 설립하여 병행·운영하는 경우와 새로운 대학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Off-Line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경우로는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에 의하여 시

작된 전자 캠퍼스인 Electronic Campus가 가장 대표적이며, Global University Alliance는 캐나다, 뉴질랜드, 타이완, 네덜란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10개 대학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이다. 반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대학인 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Phoenix 등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한 경우이다.

위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은 어떠한가. 올해 인가된 9개 사이버 대학은 대학 연합의 형태를 지닌 경우도 있고, 새로운 대학으로 설립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 대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운영 시스템과 교육 콘텐츠라고 한다면 반드시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전임 교수 등을 통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은 정부 차원의 대학과 민간 차원의 대학이 있다. 즉 정부의 관련법 제정 및 허가 과정을 통해 설립한 경우와 민간 주도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이다. 정부 주도로 관련법을 통한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사이버 대학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는 민간 또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후자도 물론 정부의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밟는다.

셋째, 교육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정도,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새로운 개발, 교수자와 학습자의 행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토론 위주의 교육으로 사전에 교과과정과 목적에 맞는 토론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온라인 상의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토론으로 진행한다. 다른 하나는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둘 중 어떤 방식이 더 옳거나 더 좋

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교육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나 글로벌 조직을 가진 사이버 대학은 토론 위주의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서로의 방식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혹자는 우리나라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서구 교육 방식과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서구는 교육이 자율적이며, 토론 위주의 교육인 반면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방식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 외 지역은 아직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률이 낮아 실시간 또는 온라인 상에 접속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보급률로 인해 이러한 콘텐츠의 전달이 용이하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역시 초고속 통신망이 보편적인 인프라가 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 방식이 주가 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토론 등이 사용될 게 분명하다.

II. 우리나라의 진행 과정

우리나라는 2000년 초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정식 학위가 수여되는 사이버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즉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대학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 및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교육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 개혁

“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 외 지역은 아직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률이 낮아
실시간 또는 온라인 상에 접속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이러한 콘텐츠의 전달이 용이하다.

”

의 시작으로 교육 선진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대학의 설립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신청 및 인가 과정은 신청 요건과 인가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관에 사이버 대학을 인가하여 주는 것이다. 6월 말까지 사이버 대학을 설립할 재단을 설립하여, 사이버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고 정부는 서류상 요건을 검토하여 가인가하였다. 가인가된 사이버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와 시스템, 콘텐츠를 준비하여 실사를 받아 최종인가 받았다. 최종인가 시기가 11월 말로 실제 법적인가 시기보다 조금 늦어진 면이 있지만 이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직 100% 온라인만으로 입학부터 학기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치인가 기준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시도되는 제도가 항상 갖게 되는 모순이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인가 후 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더 실질적인 운영 또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100% 온라인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입학 및 대학의 모든 행정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졌던 1학기가 지났다. 이 1학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이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경험

이 될 것이며, 수많은 논란의 해답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Ⅲ. 사이버 대학의 현황

올해 9개의 사이버 대학이 인가되었으며, 이 중 7개는 4년제 학사과정, 2개는 2년제 전문학사과정으로 인가되었다. 또한 내년에 개교할 7개의 사이버 대학이 현재 가인가된 상태이며, 이 중 6개는 4년제 학사과정, 1개는 2년제 전문학사과정이다.

여기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대학의 현황과 결과에 대해 시스템 측면, 콘텐츠 측면,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사이버 대학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일련의 학사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메일, 채팅은 물론 장학제도, 취업제도 등 Off-Line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이 존립하고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꼭 확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위 기능은 단지 Off-Line 대학의 현황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온라인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소통 형태가 Off-

Line과 다르다는 것이다. Off-Line에서는 한 사람이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질러 외쳐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말을 타인에게 전달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거의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이 본다. 즉, 즉시성이다. 이러한 즉시성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단점을 가진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 거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의견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한다. 결국 온라인 상의 무응답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글을 올린 한 학생의 의견은 대다수 학생의 의견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고, 침묵하는 대다수 학생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이버 대학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토론실의 경우를 보자. 현재 평가 기준에 보면 토론실에는 Thread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기능이 있느냐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토론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이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온라인 토론에 Thread 기능이 있으면 자칫 개인의 의견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Thread 기능은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밑에 다시 답을 달게 되어서, 한 페이지에 제한적인 양의 내용을 보여주는 온라인에서는 자칫 토론의 중요한 방향을 잃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가 주제를 정하여 하는 토론은 Thread 기능이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만을 올리고, 타인의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1:1

의 관계에서 토론이 진행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강의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수설계이다. 물론 이러한 교수설계가 교육학이나 교육공학적인 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반대한다. 교수설계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영학에서도 마케팅이나 회계학의 경우 교수설계가 달라야 하듯이, 모든 학문 분야는 그 교육 내용에 따라 그 설계 또한 달라질 것이다. 마치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웹 상의 1프레임에 마우스 클릭이 몇 회 이상이면 안된다'와 같은 피상적인 기준은 다 버려야 한다. 교수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용의 전달과 학습목표의 달성이다. 강의 콘텐츠가 고도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인해 멋있게 보인다고 학습이 잘될까? 수학 문제를 풀어 주는데 멋있게 표현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또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 오락적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뜻인가?

사이버 대학의 교육은 고등교육이며 성인교육이다.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내용이 좋으면 어떠한 디자인을 사용하든, 오락적인 요소가 있든 없는 상관없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이 좋을 것이다. 한 학기가 지났으니 각 사이버 대학들은 학생들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사이버 대학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과목별, 콘텐츠별로 그 결과를 분석, 보다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을 보자. 사이버 대학은 거의 모든 학사 운영과 강의 운영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Off-Line 방식이 사이버 대학에 가미되면 그 순간부터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생

“

사이버 상의 강의는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학이 이러한 콘텐츠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

기며 학생들의 특성상, 전국 심지어는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운영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규정한다면? 대학이 소정의 수수료 지불로 인해 온라인 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러나 '사이버 대학'이다.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고 머지 않아 분명히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여 온라인 상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대학이 이러한 온라인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운영이라 말할 수 있다.

학생의 측면에서 보자. 학생들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이버 대학에 Off-Line 대학과 같은 5층짜리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가? 인터넷상에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있다.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가진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근 각 대학들 또는 정부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인터넷 단말기밖에 없다. 모든 장서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의 추세이다. 사이버 대학은 여전히 미래 지향적인 대학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Ⅳ. 사이버 대학의 품질

사이버 대학이 처음 인가되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학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우려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다. 즉 사이버 대학이 처음 의도했던 평생교육의 취지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능 제도 등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일반인들에게 사이버 대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제 시간제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대학은 평생교육 역할에 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대학의 학생층은 일반 Off-Line 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즉 사이버 대학은 기존 대학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닌, 기존 대학이 정원의 제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 교수 부족 등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평생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

전체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은
25세 이상의 직장인이나 성인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교육을 하나의 생환처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이버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러나 사이버 대학 역시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점과 학위를 인정하므로 어느 정도 교육 품질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학원과 같은 사설 기관보다도 못하게 전락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교육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콘텐츠 측면과 평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이버 대학의 강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표준이 없다. 교수에 따라 16주 강의나 그 이상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이하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정에 따라 교육의 양도 달라진다. 그러면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목에 대해 두 교수에게 수강할 경우 배우게 되는 내용이 동일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 경쟁력 있고 훌륭한 강의를 하는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이버 상의 강의는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으며, 매학기 이러한 콘텐츠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이처럼 콘텐츠는 강의 내

용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로 평가를 보자. 사이버 대학 역시 성적을 부과하므로 다양한 평가가 실시된다. 수강과 같은 진도 체크나 리포트, 토론 참여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만 퀴즈나 시험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상의 시험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시간을 정해주고 시험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프라 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고, '언제, 어디서나'에 부합하는 사이버 대학의 경우 시간을 정해 놓고 시험 보는 것은, 발생할 예외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시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부정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의 부정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원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험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험문제에 대한 동일한 답으로 인해 부정이 생긴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부정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을 평가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시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이버 대학에서는 획일적인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고, 단답형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자신의 현실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부분의 학생이 직장인인 사이버 대학의 본질에 적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위주의 평가와 리포트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것을 인용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밖에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 대학의 품질은 기존 대학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얻을 수 없다. 사이버 대학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상 사이버 대학의 전개 과정, 현황,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사이버 대학은 앞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지게 되겠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이 논의는 3가지로 구분된다. 서두에 말했듯이 온라인 교육이 면대면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인가 아니면 면대면 교육의 대안이 되는가와 미래 전체 교육제도를 통틀어 어떠한 위상을 가지겠는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이버 대학의 개교 의의를 살펴보겠다.

온라인 교육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전체 교육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면대면 교육을 부정하거나 파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면대면 교육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발달 속도는 개인 휴대 단말기에 통화 상대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제 머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교수나 다른 학생을 모니터 앞에서 만날 것이다. 온라인 교육이 결코 면대면 교육의 장점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온라인 상의 등

호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간적인 유대와 교류에 적극적인지 주지한다면, 온라인 교육이 단지 보조적인 교육 수단으로만 머물 것이라고 여겨진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를 것이다. 전체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은 25세 이상의 직장인이나 성인의 재교육과 평생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교육을 하나의 생활처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이버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대학은 국제화의 첫걸음이자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이 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외국의 우수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세계로 나가야 할 때이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에게도 우리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사이버 대학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국가의 경계는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이제 유학이 필요 없는 시대에 다시 한번 사이버 대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속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정종욱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한국디지털대학교 설립준비위원으로 한국디지털대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현재 (주)디유넷의 대표이사로 활동중이며, 한국통신, 전자통신연구원, KDI 등의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였다.